

프로그램 디렉터 : 임수연 010-3685-2535, **홍보담당** : 정순영 010-4562-0604
일신홀 : 02-790-3364, www.ilshinhall.com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1층

일신문화재단은 오는 **6월 28일**과 **7월 5일**,
이탈리아문화원과의 협력으로 두 개의 각기 다른
 독특한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

먼저 **6월 28일**, **아타데모 & 그라말리아** 기타와 비올라를 위한
 듀오 공연이 펼쳐지고, **7월 5일**에는 **일신프리즘 콘서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의 **Opter Ensemble** 첫 내한공연이 열린다.
 두 공연 모두 장소는 한남동에 위치한 **일신홀**이고
 공연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다.



<기타&비올라 듀오 ‘아타데모 & 그라말리아’>
 2019.06.28.(금) 19:30 일신홀
 주최: 이탈리아문화원 / 후원: 일신문화재단



2019 일신 프리즘 7 “Opter Ensemble 첫 내한공연”
 <Hommage à Brahms>
 2019.07.05.(금) 19:30, 일신홀
 주최: 일신문화재단 / 후원: 이탈리아문화원

2019 일신문화재단
 기획공연

일신 프리즘 콘서트 시리즈 소개

<기타&비올라 듀오 '아타데모 & 그라말리아'>

2019.06.28.(금) 19:30 일신홀

주최: 이탈리아문화원 / 후원: 일신문화재단

**공연소개**

기타리스트 루이지 아타데모(Luigi Attademo)와 비올리스트 시모네 그라말리아(Simone Gramaglia)는 여러 해 동안 2중주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파가니니의 곡과 같이 처음부터 비올라와 기타를 위해 쓰여진 곡들 외에도 세련된 편곡들을 포함하는 매력적인 연주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그들이 취입한 파가니니 음반은 새로운 연주라는 점에서, 또 파가니니의 '그란 비올라를 위한 소나타'를 비올라와 기타를 위해 쓰인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평단의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 듀오는 이탈리아와 해외 곳곳에서 초청받고 있는데, 비올라와 기타라는 평범하지 않은 악기들의 조합과 고르고 정제된 두 악기의 음색과 수준 높은 연주력으로 항상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주자 소개**Viola 시모네 그라말리아 Simone Gramaglia**

지난 15년 간 전세계를 돌며 연주해온 크레모나 사중주단의 비올리스트인 그는 솔리스트로서 여러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파가니니의 비올라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했으며 자신의 세대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비올리스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예술적으로 뛰어난 수준을 보여준 협연으로는 안드레아 루케시니(Andrea Lucchesini), 로런스 더튼(Lawrence Dutton), 제이미 왈튼(Jamie Walton) 등과의 연주를 꼽을 수 있다. 미하일 쿠겔(Mikhail Kugel), 브루노 지우란나(Bruno Giuranna), 유리 바쉬메트(Yuri Bashmet)를 사사했으며 멘토이자 친구인 하토 베이엘르(Hatto Beyerle)와의 만남을 통해 큰 영감을 받았다. 크레모나 슈타우퍼(Stauffer) 아카데미에서 현악사중주를 가르치면서 전 유럽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열고 있다.

Guitar 루이지 아타데모 Luigi Attademo

1995년 제네바 국제콩쿨에서 3위를 차지하며 연주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다.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안젤로 길라르디노(Angelo Gilardino)를 스승으로 두고 성장했으며, 조반니 구안티(Giovanni Guanti), 율리우스 칼마(Julius Kalmar), 알레산드로 솔비아티(Alessandro Solbiati), 에밀리아 파디니(Emilia Fadini)를 사사했다. 그는 자신의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타리스트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10여 장 이상의 디스크를 취입했는데 그 중에는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와 바흐의 모노그래프 음반, 세고비아 아카이브의 미발표작 음반, 루이지 보케리니의 오중주곡들을 담은 음반이 있다. 유럽을 비롯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최근에는 인도와 미국에서 성황리에 연주회를 마쳤다.

<PROGRAM>

Antonio Vivaldi – Sonata no. 5 in e minor RV 40

Carlo Galante – Andromeda (from Quattro Stasimi)

J.S. Bach – Sonata BWV 1020

Mauro Montalbetti – Löschen

Niccolò Paganini – Sonata Concertata

-intermission-

Franz Schubert – Sonata l'Arpeggione D.821

2019 일신 프리즘 7 “Opfer Ensemble 첫 내한공연”

<Hommage à Brahms>

2019.07.05.(금) 19:30, 일신홀

주최: 일신문화재단 / 후원: 이탈리아문화원

**공연소개**

이탈리아의 Opfer Ensemble은 국립 산타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호른 수석 Guglielmo Pellarin에 의해 창단된 앙상블로, 많은 현대 작곡가들이 이들에게 작품을 헌정했고 지속적인 레퍼토리 연구와 발견을 통해 이탈리아 음악계에 중요한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실내악단이다. 이번 7월 5일 일신홀 공연은 이들의 첫 내한공연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호른 3중주의 걸작을 남긴 브람스와 이를 기념하는 20세기 최고의 작품 리게티 호른 트리오, Opfer Ensemble을 위해 헌정된 이탈리아 작곡가 Cascioli 트리오가 아시아 초연된다.

연주자 소개

Opfer Ensemble은 국립 산타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호른 수석 Guglielmo Pellarin과 피아니스트 Federico Lovato, 바이올리니스트 Francesco Lovato에 의해 창단되었다. Zanettovich, Francescato, Mirzayeva, Schweizer와 같은 많은 현대 작곡가들이 이들에게 작품을 헌정했고 지속적인 레퍼토리 연구와 발견을 통해 이탈리아 음악계에 중요한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Opfer Ensemble은 2016년 베니스의 Teatro La Fenice에서 F. Schweizer의 Trio를 초연했으며 Ligeti와 V. Williams의 음악을 포함한 이 콘서트는 RAI Radio3에 의해 녹음되었다. 또한 이들은 라디오3, Dilsberger Kammermusiktage, Festival Mezzano Romantica, Ascoli Piceno Festival, Vacanze Musicali di Sappada, Società Coro e Orchestra San Marco와 같은 주요 페스티벌과 시즌에 초청되어 연주했다.

2016년에 Opfer Ensemble은 CIDIM(이탈리아 국립음악협회)과 Friuli 재단의 "Friuli in Musica"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이탈리아, 터키, 알바니, 독일, 스웨덴, 일본에서의 연주회와 홍보 활동을 지원받아 전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호른 Guglielmo Pellarin**피아노 Federico Lovato****바이올린 Francesco Lovato****<PROGRAM>**

Gianluca Cascioli – Trio for Horn, violin and piano *

György Ligeti – Trio for Horn, violin and piano “Hommage à Brahms”

Johannes Brahms – Trio for Horn, violin and piano Op.40

[2019 프리즘 콘서트 시리즈]

프리즘 콘서트 시리즈는 공연장으로는 유일하게 근현대음악을 테마로 하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일신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한남동 일신홀에서 펼쳐지는 이 시리즈는 2017년 10월에 시작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총 11회에 걸쳐 더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그 중 2회는 공모를 통한 연주자 선정으로 연주자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5일에는 2019 프리즘 콘서트 일곱번째 공연으로 일신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이탈리아 문화원의 후원으로 이탈리아 Opter Ensemble의 첫 내한공연이 열린다. 피아노, 바이올린, 호른 트리오의 명작 브람스와 리게티의 작품과 함께 이탈리아 현대 작곡가 Cascioli의 작품이 아시아 초연되며, 국내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공연이다.

일신홀은 현대음악 전문공연장으로 2009년 개관 이래 줄곧 현대음악 중심의 독창적인 공연을 통해 국내외 작곡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해왔다. 일신 프리즘 시리즈의 모든 공연은 일신문화재단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전석 무료공연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의 무료관람기회를 제공한다. 매회 선착순으로 관람신청을 받고 있다. (공연문의: 일신홀 02-790-3364)

2019년 일신 프리즘 콘서트 시리즈 공연일정

- 19:30, 공연장소 일신홀(용산구 한남대로 98)

		공연정보 / 비고
1 25일	유재아 플루트 독주회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귀국한 플루티스트 유재아의 독주회 드뷔시부터 현대에 이르는 근현대 작품을 플루트와 피아노, 첼로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 Debussy, Brotons, Délezir, Ueno
2월25일	현대음악앙상블 'WIRO'	본격 현대음악 연주를 위해 창단된 젊은 현대음악 앙상블 위로. 익숙함 보다 새로움을 찾는 관객을 위한 공연으로 프랑스 초현대 작품의 생생한 한국초연 현장 Hersant, Escaich, de Chizy 외
3월 14일	타악듀오 '모아티에'	브람스 독일 레퀴엠부터 미니멀 음악의 대가 스티브 라이히에 이르는 다채로운 작품들과 함께 하는 독특하고도 다이내믹한 타악기의 향연 Brahms, Takemitsu, Reich, Cangelosi 외
4월 19일	Violin 박지윤 & 앙상블 유니송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임명되어 세계의 중심에 선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과 그녀의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동문들의 명품 실내악 연주와 함께 하는 20세기 초 Paris로의 시공간 여행 Fauré, Chausson
5월2일	앙상블 노바 I	국제적 경력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노바의 연주로 20세기 고전 바르톡부터 현존하는 한국작곡가의 신작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고전과 현대의 구름다리 퍼포먼스 Bartók, Gubaidulina, 이신우 외
6월20일	최희연 피아노 독주회	현대 피아노 에튜드의 새로운 장을 연 진은숙의 피아노 에튜드를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Debussy, 진은숙
7월5일	Opfer Ensemble <Homage à Brahms>	피아노, 바이올린, 호른 3중주라는 독특한 편성으로, 이 편성의 걸작을 남긴 브람스와 이를 기념하는 20세기 최고의 작품 리게티 호른 트리오를 이탈리아 앙상블의 내한 공연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Brahms, Ligeti 외
9월26일	첼로 조엘 마로시 & 피아노 안종도	스위스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 조엘 마로시와 롱티보 콩쿠르 수상자 피아니스트 안종도의 감성 듀오. 프랑스와 동유럽의 낭만, 현대 작품과 함께 맞는 가을 Chopin, Beffa, Poulenc
10월29일	2018 일신작곡상 with 앙상블 아인스	2018 일신 작곡상 수상자 배동진, 지성민의 신작 초연 공연으로 참신하고 다채로운 현대 실내악 작품의 향연 배동진, 지성민 외
11월 15일	앙상블 노바 II	시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앙상블 노바의 두 번째 공연. 오보이스트 관현회를 중심으로 전자음악 등 우리시대 새로운 음악이 펼쳐질 신선한 무대 Ferneyhough, 김지향, 송향숙, Bliss 외
12월 13일	김성훈 피아노 독주회	파워풀하고 폭넓은 사운드로 청중을 압도하는 피아니스트 김성훈의 드라마틱 바그너와 리스트, 현대작품까지의 장대한 파노라마 Liszt-Wagner, Scriabin, Gubaidulina 외
※ 연주자와 공연일정,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